

## 국내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운영 실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예방의학교실<sup>1</sup>

강복수 · 김동석 · 이광윤 · 황태윤<sup>1</sup> · 방재범

= Abstract =

### The Operating Status of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s in Korea

Pock Soo Kang, MD, PhD, Dong Suk Kim, MD, PhD, Kwang Youn Lee, MD, PhD,  
Tae Yoon Hwang<sup>1</sup>, MD, PhD, Jae Beum Bang, MA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sup>1</sup>,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operating status of existing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s in medical colleges and to define the roles of these unit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medical schools contemplating to establish similar management units.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via mail. The survey 41 medical colleges across the nation and was done during September 2003 and March 2005. The assessment instrument included six items assess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omposition, major activities, self-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e medical education unit for medical colleges with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There were only two items assessing demand for establishment of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prerequisit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the expected role of such a system for medical colleges without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Results:** Of 41 medical colleges, 18 had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as of September 2003 and 32 as of March 2005. The major activities of these 18 management units included curriculum development (26.7%), faculty development (26.7%), support for PBL (16.0%) and OSCE (12.0%). Recently, these units have become involved in enhancing clinical clerkship as well as improving teaching skills. To have a medical education-related unit run smoothly, at least two tenured faculty members majoring in education and medical education were needed. And a compensation systems was required for those professors working in the unit as a second post but without pay.

**Conclusion:** This stud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faculty membe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in having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meet its objectives. The role of the dean of medical college seems crucial in deciding how the unit is operated.

---

**Key Words:**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s,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

교신저자: 강복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번지  
Tel: 053)620-4348, Fax: 053)629-7093, E-mail: medu@med.yu.ac.kr

## 서 론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하거나 촉구 받고 있다 (Bundred 2002). 이는 최근 의학교육의 세계적인 필수요구 (Core Committe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2002)가 제안되는 것과 함께 의학교육의 국제표준화 방안 (WFME, 2003)마련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학제 도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의과대학 학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무상, 2001). 또한 문제바탕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나 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방식과 평가방법의 도입, 근거바탕학습 (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나 의료정보학과 같은 의료에 대한 선진화된 운영 및 접근방식을 교육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사회에서 의학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지엽적인 형태의 전문성 함양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우택, 1999; 전우택·양은배, 2003).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의과대학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나 기구를 통하여 대응을 모색하여 왔다 (강복수, 1996). 또한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PBL이나 OSCE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와 같은 기구만으로는 의학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행정에 익숙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전문적인 참모진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용일, 1997; 김용일, 2002). 의학교육학교실<sup>1)</sup>은 이러한 위원회라는 의사결정적 성격이 강한 기구만으로는 급변하는 의학교

육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자각과 위기의식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교육학교실 역시도 그 활동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자들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학교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교육학교실의 바람직한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대상 및 방법

전국의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학교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각 대학의 교무담당 부학장 및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국 41개 대학 중에서 40개 대학은 우편과 팩스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1개 대학만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문지 내용을 확인하여 응답을 구하였다. 최근 의과대학 인정평가 등으로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이 급증하여 최신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2003년 9월 조사시 의학교육학교실이 없다고 응답한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여부, 설립 시기, 명칭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설문지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 있는 학교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실의 조직, 구성, 주요활동, 운영에 대한 자체 만족도, 행정적 재정적 규모, 의학교육학교실의 활성화 방안 등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교실 설립의 필요성에

1) 의학교육학교실과 유사한 기구, 즉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실 등을 통칭하여 의학교육학교실이라 하기로 한다.

**Table I.** Name and Establishment Period of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Item	Number	%
<b>Name of Medical Education Unit</b>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11	34.4
Office of Medical Education	10	31.3
Division of Medical Education	7	21.9
Center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Research	2	6.2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1	3.1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 Social Medicine	1	3.1
<b>Established Period(years)</b>		
Less than 1	11	34.4
1 ~ 3	12	37.5
3 ~ 5	5	15.6
5 ~ 10	3	9.4
10 and more	1	3.1
<b>Total</b>	<b>32*</b>	<b>100.0</b>

\*32: As of March, 2005

관한 요구 및 이유, 그리고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 등 두 가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1년 미만인 대학은 11개교(34.4%)이었다 (Table I).

## 결 과

### 가. 의학교육학교실이 있는 대학의 운영 현황

#### 1)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 현황

2005년 3월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32개 대학(78.0%)이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했고 9개 대학(28.0%)이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 전국 32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의학교육학교실과 유사한 기구의 명칭은 의학교육학교실이 11개교(3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학교육실이 10개교(32.3%), 의학교육학과가 7개교(21.9%), (의학)교육개발연구센터 2개교(6.2%) 순이었으며, 그 밖에 의학교육연구소 및 인문사회의학교실이 각각 1개교씩(3.1%)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 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이 4개교(12.5%)이고, 이 가운데 한림의대의 의학교육연구소는 설립 기간이 17년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설립 기간이 5년 미만인 대학이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한 32개 대학 중 28개교(77.5%)이었으며,

#### 2) 의학교육학교실의 구성

의학교육학교실의 구성원을 살펴볼 때 의학교육학교실에 소속된 교원은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전체 1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임교원이 8명(5.1%), 겸무교원이 150명(94.9%)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 소속 교원들의 직급은 158명 가운데 교수가 68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교수 55명(34.8%), 조교수 28명(17.7%), 전임강사 5명(3.2%), 연구강사 2명(1.3%) 순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158명 가운데 임상의학 전공자가 96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초의학 전공자가 52명(32.9%), 의학교육학 전공자가 4명(2.5%), 교육학 전공자가 2명(1.3%), 기타 전공자가 3명(1.9%), 무응답 1명(0.6%)이었다 (Table II).

#### 3) 의학교육학교실의 주요 활동

의학교육학교실의 주요 활동 중에서 먼저 강의 영역과 관련하여 의학교육학교실에서 담당하는 과

**Table II.** Composition of Faculty Members of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Faculty members	Number	%
Plural post	150	94.9
Full-time	8	5.1
Professors in clinical medicine	96	60.8
Professors in basic medicine	52	32.9
Professors in medical education	6	3.8
Others	4	2.5
Total	158	100.0

**Table III.** Major Activities of the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Activities	Number	%
Curriculum development	20	26.7
Faculty development	20	26.7
Support PBL	12	16.0
Support OSCE	9	12.0
Assessment of lectures & clinical clerkship	6	8.0
Others	8	10.6
Total	75	100.0

목이 있는 대학은 3개 대학이었다. 계명의대에서 의예과 2학년에 필수 2학점으로 ‘의사와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었고, 연세의대에서 의학과 2학년에 선택 과목 1학점으로 ‘의학교육학’을, 고려의대에서 의예과 2학년에 전공과목 2학점으로 ‘의학입문’을 강의하고 있었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와 같은 학술회의의 경우 전국 규모로 개최하거나 계획 중인 대학은 4개 대학으로 가천의대 2회, 연세의대, 영남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로 개최하는 학교도 4개 대학이었으며, 이 가운데 계명의대가 1회, 동아의대가 4회, 영남의대가 4회, 전북의대가 2회 개최 혹은 계획 중이었다. 교내 규모로는 16개 대학이 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고려의대가 6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세의대가 30회, 가천의대가 15회 순이었다. 학술활동에 대한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대학은 13개 대학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전국 규모 학술

지에 게재하는 대학이 11개교였고, 국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대학은 1개 대학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의 현재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개 항목 가운데 최대 5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의학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 개발’이 전체 75개 선택 가운데 각각 20개 (2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PBL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이 12개 (16.0%), OSCE 운영 및 지원이 9개 (12.0%), 강의 및 임상실습교육 평가 6개 (8%)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III).

#### 4) 의학교육학교실 운영에 대한 자체 만족도

의학교육학교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한 대학이 10개교 (5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이 3개교 (16.7%), ‘만족스럽다’는 대학이 2개교 (11.0%), ‘매우 만족스럽다’는 대학이 1개교 (5.6%), ‘보통이다’는 대학이 1개교

**Table IV.** Self-satisfaction Rate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Degree of self-satisfaction	Number	%
Very satisfied	1	5.6
Satisfied	2	11.0
Don't know	1	5.6
Dissatisfied	10	55.6
Very dissatisfied	3	16.6
No response	1	5.6
<b>Total</b>	<b>18</b>	<b>100.0</b>

**Table V.** Causes of Ineffective Performance in the Unit

Causes	Number	%
Absence of tenured faculty members majoring in education	16	32.7
Lack of interest and sense of obligation in education by medical professors	13	26.5
Unestablish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rofessors working in the Unit as the second post	4	8.2
Indefinite regulation of the Unit	4	8.2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3	6.1
Others	9	18.3
<b>Total</b>	<b>49</b>	<b>100</b>

(5.6%), 무응답이 1개교 (5.6%)로 나타났다. 교실 구성원의 참여도는 ‘일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대학이 7개교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대학이 6개교 (33.3%), ‘모두가 적당히 참여한다’는 대학이 2개교 (11.1%), ‘일부만 적당히 참여한다’는 대학이 1개교 (5.6%), 무응답이 2개교 (11.1%)로 나타났다 (Table IV).

의학교육학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의 참여나 실질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10개 항목 가운데 최대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49개 항목 가운데 ‘의학교육학교실의 전임 교원의 부재’로 응답한 수가 16개 (32.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겸무 교수들의 본연 (원 소속교실에 속한 활동이나 진료)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여력 부족으로 응답한 수가 13개 (26.5%)였고 ‘겸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가 4개 (8.2%), ‘의학교육학교실의 규정 부재’가 4개 (8.2%), ‘의학

교육학교실의 재정적 지원 부재’가 3개 (6.1%)로 나타났다 (Table V).

**5) 의학교육학교실의 활성화 방안**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개 대학 (88.9%)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임교원의 적정 수에 대해서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개 대학 (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명으로 응답한 대학이 4개교 (22.2%), 3명으로 응답한 대학이 3개교 (16.7%)이었다. 겸무교원의 경우 10명이 필요하다는 대학이 8개 대학 (44.3%)으로 가장 많았고, 조교는 2명이 필요하다는 대학이 8개교 (44.4%)로 가장 많았다. 사무원에 대해서는 1명이라고 응답한 대학이 13개교 (72.1%)로 가장 많았다.

의학교육학교실의 겸무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15개교 (83.3%)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교육과 봉사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평점 150% 제공해야 한다는 대학이 3개교 (16.7%)로 가장 많았다. 수당 지급은 기본급여의 10%와 월별 일정 수당지급이 각각 3개 대학 (16.7%), 기본급여의 20%, 기여도에 따라 지급이 각각 1개 대학 (5.6%)이었다.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1년 1회 개인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과 '1년 1회 개인별 해외 학술대회 또는 연수 경비 지원'이 각각 4개 대학 (22.2%)으로 가장 많았다.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유의 제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7개 대학 (94.4%)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설 규모로는 연구실,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 중에서 2개의 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학이 6개 대학 (33.3%)으로 가장 많았고, 3개로 응답한 대학이 4개 대학 (22.2%)이었다.

현재 의학교육학교실의 운영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거나 시행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이내로 기술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의학교육학교실의 목적과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다.

**나. 의학교육학교실이 없는 대학의 의학교육학교실 개설에 대한 의견**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23개 대학 (56.1%)을 대상으로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sup>2)</sup>.

2) 1차 조사 때 (2003년 9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하지 않은 23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이 2차 조사 시점 (2005년 3월)에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했으며, 그 외에 9개 대학의 경우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차 조사 때 보다 더욱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학교육학교실이 없는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1차 조사 때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한다.

**Table VI.** Request of the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to be Established

Degree of the request	Number	%
Very strong	9	39.1
Strong	12	52.2
Appropriate	1	4.3
Weak	1	4.3
Very weak	0	0
Total	23*	100.0

\*23: As of September, 2003

**1)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의 필요성**

의학교육학교실과 유사한 기구나 부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대학이 23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 (52.2%)이었으며, '매우 그렇다'가 9개 대학 (39.1%), '보통이다'와 '아니다'는 대학이 각각 1개 대학 (4.3%),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학은 0개 (0%)이었다 (Table VI).

자기 대학에 의학교육학교실이 하루라도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대학이 14개 대학 (60.9%), '매우 그렇다'가 6개 대학 (26.1),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학이 2개교 (8.7%)이었다. 언제 설립할 계획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이 23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 (60.9%)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 2학기라고 응답한 대학이 3개 대학 (13.0%), 2004년 2학기 2개 대학 (8.7%) 순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5가지 선택 항목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을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학교육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관리와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전체 54개 선택 항목 중에서 19개 (35.2%)로 가장 많았다 (Table VII).

**2)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을 위한 노력**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1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교실

**Table VII.** Reasons for Establishing a Medical Education Management Unit

Reasons	Number	%
Improvement in administration and support system in medical education	19	35.2
Lack of interest and sense of obligation in education in medical professors	15	27.8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medical education	9	26.7
In preparation for opening medicine and education markets	6	11.1
Others	5	9.2
<b>Total</b>	<b>54</b>	<b>100.0</b>

**Tables VIII.** Opinions on the Roles of the Unit

Opinion	Number	%
Faculty development by workshops & seminars on education	17	32.7
Curriculum development	15	28.8
Research & application of medical education tendency	11	21.2
Support PBL & OSCE	5	9.6
Others	4	7.7
<b>Total</b>	<b>52</b>	<b>100</b>

설립에 대한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교실을 주도해 나갈 영향력 있는 핵심 인력(주임교수 혹은 전임교수)의 확보'라는 응답한 경우가 각각 8개교(34.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장단이나 학교 재단측의 의학교육학교실 운영 및 교실원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개교(17.4%)로 나타났다.

의학교육학교실 설립 이후에 교실의 운영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학교육학교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유기술을 포함한 7가지 항목 중에서 '의학교육 정기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교수 능력을 개발시키거나 의학교육의 동향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7개 선택 수 가운데 17개(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학교육학교실 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14개(20.9%), '겸무교수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보장'과

'교실의 역할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마련'이 각각 7개(10.4%)이었다.

의학교육학교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최대 3가지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52개 응답 수 가운데 '교수법 워크숍이나 강의평가 피드백 등을 통한 교수능력 개발 및 지원'이 17개(32.7%)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업지도를 위한 정보나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 등'이 4개(7.7%)로 가장 적었다(Tables VIII).

## 고 찰

본 조사에 따르면 의학교육학교실은 1차 조사시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18개 대학(44.0%)에 설립되어 있었으나 2차 조사시 32개 대학(78.0%)으로 급격히 늘어났다<sup>3)</sup>. 32개 대학의 의학교육학교실 관련 기구의 명칭은 의학교육학교실, 의학교육실,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연구소, (의학)교육개발연구센터 등 다양했는데 이는 각 대학마다 의학교육학교

실의 역할이나 그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각 대학의 기존 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 기간의 경우 32개 대학 중 5년 미만인 대학이 28개 (87.5%) 1년 미만인 대학이 11개 대학 (34.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 및 교육 시장개방이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학제 전환 등과 같은 국내외적 요인과 함께 의과대학 인정평가 도입을 계기로 의학교육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형태의 전문적 연구와 지원 및 관리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조사시 의학교육학교실을 설립하지 않은 23개 대학 중에서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9개 대학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2차 조사시 의학교육학교실을 새로 설립한 곳이 14개가 되었다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의학교육학교실과 같은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실의 활동 영역은 크게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과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학교육학교실이 의예과나 의학과와 강의 담당하는 것인데 현재 의학교육학교실에서 강의 담당하는 경우는 3개 대학이고 모두 1과목씩 맡고 있으며 2개 대학이 2학점, 1개 대학이 1학점을 강의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교육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도 1개 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교육학교실의 역할이나 위치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 여부와 전

환시 의학교육학 전문가 양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학계에서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학적 전문성의 기초자질 함양이나 의학관련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지원을 의학교육학교실에서 계획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 없이 의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ASME 2003). 교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이나 학술회의를 전국규모로 개최하거나 계획중인 대학은 3개 대학에 불과하고 지역규모로 개최하는 경우도 3개 대학에 그쳤다. 교내 규모로 개최하는 경우는 16개 대학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교내 범위에서는 학술활동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학술활동의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대학은 9개 대학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실 겸무교수들의 교육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생소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임교원을 두지 못할 경우 겸무교수들에게 의학교육의 주요 영역을 할당하여 개인별로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의학교육학교실의 주요 활동이 교육과정 개선,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능력 개발, PBL 및 OSCE 개발 지원과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교실 설립 예정인 대학이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 교실 겸무교수들에게 연구와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교실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교실 운영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전임교원의 부재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실 겸무교수들의 본연의 업무과중에 따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무감 부족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겸무교수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러한 인센티브 요청 내용에 대해서 교육·봉사 영역에 대한 평점과 국

3) 미국의 경우 의학교육학교실과 같은 기구는 1958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Hale Hamm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고 2001년까지 61개 의과대학에 설립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주로 PBL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었는데 강의지원이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소규모 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국제적으로 보면 1970년대에 의학교육학교실이 가장 활발하게 설립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1973년 Dundee, 호주는 New South Wales, 네덜란드는 1977년 Maastricht 의과대학이 최초로 설립하였다.



내·외 연수 및 학술 대회 경비지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학교실의 구성원이 대부분 겸무교수라는 점, 그리고 당분간 겸무교원을 배제한 채 전임교원만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형태의 의학교육학교실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겸무교수에 대해 한편으로는 의학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학교육학교실이 없는 대학의 경우 교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시 23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인정했지만 교실 설립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9개 대학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전반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일이 교육보다는 진료와 연구에 치중해 온 풍토에서 의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교실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아갈 핵심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학교육학교실의 성격이 기존 의과대학 조직기구의 성격과 많이 다르다 점 등에서 교실을 설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교육학교실 설립의 어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교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서 제기되는데 이는 의학교육학교실 설립 이유에 대해서 22개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본연의 직무 때문에 깊은 관심과 참여가 어렵기에 의학교육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과 의학교육학교실 교유의 역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23개 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이 동일하게 교수법 워크숍이나 강의 평가 피드백 등을 통한 교수능력 개발 및 지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의학교육학교실의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교육학교실 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과 기존의 다양한 교육관련 조직이나 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임상 영역이 아닌 경우에 전임교원 확보가 어려운 의과대학 실정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 의학교육학교실 운영 경험이 없는 데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보면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이나 운영의 활성화는 거의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다. 교실 설립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과 권한을 보장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장의 의지와 노력이 강조된다. 특히 사립 의과대학의 경우 대학병원의 어려운 실정을 생각한다면 교수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설득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현재 의학교육학교실이 설립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1~2명의 교실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과 겸무교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전임교원을 어떤 인적요원으로 몇 명이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 비해 열악한 경쟁력을 가진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의학을 전공한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인력 1명과 교육학을 전공한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인력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sup>4)</sup>. 보다 현실적으로 제안한다면 의학교육학교실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수들보다 먼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들의 교수능력 개

4) 최근 의학교육학교실에 대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의학교육학교실의 인력은 의학분야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IT 전문가, AV 시스템 전문가, 행정지원 인력 등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의과대학이 최근 의학교육학교실과 연계하여 의학교육지원실이나 의학교육정보지원실과 같은 소기구를 갖추는 것은 새로운 교육 환경과 교육방식 도입, 교육의 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동향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학교육학교실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vis et al. (2005)를 참고할 것.

발을 통해서 의과대학에 교육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참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갖추어져야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복수(1996). 전국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 **한국의학교육**, 8(2), 153-163.
- 김용일(1997). 21세기 의사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개혁. **영남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의학교육 심포지움 자료집-21세기 의학교육의 마련**.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 김용일(2002). 신생 의과대학의 교육계획 발전을 위한 촉진인자 및 저해인자 분석. **한국의학교육**, 14(2), 227-243.
-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단(2005).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위한 의과대학 인정평가 교수 워크샵 자료집**.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이무상(2001). 21세기 의학교육과 의학전문대학원. **연세의학교육**, 2(2), 35-57.
- 전우택(1999). 의학교육의 새로운 방향. **연세의학교육**, 1(1), 31-53.
- 전우택, 양은배(2003).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ASME(2003). Improving the Quality of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Report of the Workshop, Winndsor, UK.
- Bundred, P.(2002). Facing up the Realities of Grobal Medical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Medical Education*, 36, 600-601.
- Core Committe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2002). Global minimum essential requirements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Teacher*, 24, 130-135.
- Davis, M.H. et al.(2005) The Development and Role of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27, 665-675.
-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2003). Global Standard in Medical Education for Better Health Care (Draft; to be accepted in March).